

건설사 아파트 조기분양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시장 침체속 '고육지책' 상반기 집중...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각

오는 9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각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앞당기는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를 둘러싼 건설업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이미 승인을 받은 곳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에 따라 상반기 분양과 사업승인 등 관련 인허가 신청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11일 건설업체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통과 가능성

이 높아지면서 인허가를 서두르는 업체가 늘고 있다. 가뜰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되면 건축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데다 시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 자칫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울산 무거동과 대구 죽곡리 등 일부 사업지의 인허가 일정을 7, 8월로 조정하는 한편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부산 반여2차 등의 분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오는 8, 9월로 예정된

인천 서구 오류동 1, 2차 사업 698가구와 부산 장전동 308가구의 인허가를 서두르는 등 조기분양에 나서고 있다.

동일토건·동부건설 등 5개사는 용인 신봉지구 5천여가구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선 현재 진행중인 사업, 특히 지난해부터 이월돼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업지는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당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청약 열기가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미리 분양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월드건설은 7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 염창동 월드메르디앙(166가구)의 일정을 5월로 앞당겨 중랑구 목동

아파트(142가구)와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지방 분양을 검토중인 업체도 늘고 있다. 현직은 당초 하반기 분양예정이던 광주 수완지구 2차 1천299가구를 5, 6월께 분양하는 한편 부산 정관지구 2차 1천399가구를 올해 안에 분양하기로 하는 등 지방주택시장 침체를 겨냥한 조기분양에 나선다.

현직 관계자는 "지방시장이 냉랭하지만 광주, 부산 등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경우 자연히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양도세 허위신고땀 세무조사”

부동산 양도 실가 과세 예정 신고 이달말 마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올해 들어 부동산을 판매한 의무자에 대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오는 3월 말 끝난다.

세무당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말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새 제도를 잘 몰

라 불성실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정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매각할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돼있어 1월에 주택을 판 과세 대상자는 3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납세 의무자가 손쉽게 신고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군·구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소의 자료, 각종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혐의가 포착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가급적 조기에 벌이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ilee@

내리는 보험료도 있다

화재·해상보험 내달 5.3% ↓

내달 1일부터 화재·해상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료가 평균 5.3% 내린다. 이에 따라 이달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달 이후 가입해야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11일 손해보험업계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참조준 보험료를 조정안을 확정, 내달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보험과 원자력보험 등 기술보험료율이 12.6% 내리고 해상보험 6.5%, 배상보험 6.3%, 종합보험 4.3%의 순으로 내린다.

화재보험은 3.5%, 상해보험은 3.

3% 내리고 이월 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이 12.6% 인하된다.

참조준보험료율은 보험료를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이 통계와 보험사 의견 등을 토대로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조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매년 신고한 요율로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해당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져 손보험료율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각 사별로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자금 1,600억 지원

농협전남본부, 대출금리 3%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올해 농업종합자금을 지난해 1천400억원보다 200억원 증가한 1천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출기간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은 2년, 시설자금은 13~15년이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 시군지부나 지역농축협, 품목농협 등에 사업계획서(농협에 비치)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차질 수익성을 무시한 차입경영은 농가부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농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심사해 필요자금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아시아·대한항공 기내식서비스 금상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이 국제기내식협회(ITCA)에서 선정한 머큐리상 최우수상을 나란히 받으며 세계 최고의 기내 서비스 항공사임을 과시했다.

11일 일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최근 독일 필름에서 열린 ITCA 연차 총회에서 각각 기내 서비스 부문과 식음료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고기와 9가지 신선한 야채와 호두, 잣, 땅콩 등 견과류를 갈아 넣어 감칠맛을 더한 쌀밥이 포함된 '영양쌈밥'을 2005년 미주노선을 시작으로 현재 유럽노선까지 서비스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대한항공은 혼자 여객기에 탑승한 아동들 위해 제공 하는 '플라잉맘 서비스'로 머큐리상을 차지했다. '플라잉맘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탑승한 아동에게 담당 승무원이 식음료 섭취 내역, 수면, 휴식,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보살핀 뒤 편지를 작성해 도착지의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오토리스 개업 최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금호오토리스 개업식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주)금호렌터카가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자본금 200억원, 리스차량 1천100대로 운영될 오토리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허'자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김호렌터카 제공>

금호그룹 해외레저사업 진출

중·사이판 골프장 인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외 레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금호아시아나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범화 컨트리 클럽'과 사이판에 위치한 '라우라우베이 골프 리조트'를 인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1년여간의 사업검토를 거쳐 범화공정유한공사와 지난해 12월에 지분 100%인수 조건으로 범화CC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금호아시아나는 범화CC의 명칭을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웨이하이)'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개보수공사에 들어가 코스 정비와 함께 클럽 하우스·호텔 등을 증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4월에 문을 연 범화CC는 골프를 즐기는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골프장으로 29만6천평대지에 18홀, 파27, 전장 6천334야드 규모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28일 UMDA사와 사이판 '라우라우 베이

골프 리조트'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라우라우GC 역사에 들어가 코스 정비와 함께 클럽 하우스·호텔 등을 증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그런 노면이 설계해 지난 1993년 개장한 '라우라우 베이 골프 리조트'는 사이판에 있는 5개 골프장 중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완지구 상업용지 등 4만3천평 공급

토공 19~20일 경쟁입찰

한국토지공사는 호남권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광주 수완지구 상업 및 주차장용지 등 4만3천평(183필지)을 공급한다.

11일 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완지구 내 상업용지(56필지)를 비롯, ▲근린생활시설(49필지) ▲주차장(39필지) ▲주차장(4필지) ▲유치원(2필지) ▲주유소(4필지) 부지 등이 오는 19, 20일 이틀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상업용지는 1만4천평으로 필지별 82~2천723평이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7천평, 66~339평), 주차장(6천평, 79~270평), 주차장(9천평, 154~1천851평) 등이 공급된다. 평당 분양가는 상업용지 502만3천원, 주차가 379만5천원, 근린생활시설 346만

원, 주차장 219만8천원 등이다.

이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은 상업 및 주차용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우 소규모 상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토공 측의 설명이다.

또 상업용지는 공급 토지 대부분이 단지 중심부 및 35m 도로와 인접해 있어 투자 가치가 높고, 주차용지도 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용적률 등 부지활용 측면에서 상업용지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일정은 신청서제출(19일 10시~20일 2시), 입찰서제출(19일 10시~20일 6시) 등을 거쳐 21일 11시에 낙찰자가 발표된다. 입찰은 토공의 토지정보시스템(buy.iklc.co.kr)에 의한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수 中企에 2,000억 지원

光銀-여수 상의 협약

광주은행이 여수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최근 여수상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자금을 지원키로 여수상의와 협약을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대출한도 2천억원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연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기한은 2년으로 하되 연장도 가능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두르십시오! [명원·화정·화정지구]

특수임대! 대전시 25500가구에 서비스 후원!

5000가구의 임대주택

홍익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대전광역시 서구 홍익동 1-1번지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78,000원**

제주도 여행 78,000원 패키지

<p>특가투어 70,000원</p> <p>1. 제주도 1박 2일 여행</p> <p>2. 제주도 2박 3일 여행</p> <p>3. 제주도 3박 4일 여행</p>	<p>특별투어 70,000원</p> <p>1. 제주도 1박 2일 여행</p> <p>2. 제주도 2박 3일 여행</p> <p>3. 제주도 3박 4일 여행</p>	<p>특별투어 70,000원</p> <p>1. 제주도 1박 2일 여행</p> <p>2. 제주도 2박 3일 여행</p> <p>3. 제주도 3박 4일 여행</p>
---	---	---

문의: 064-744-1109 www.hanm.com